

아랍어 Itifāt의 조건과 제약에 관한 연구*

| 윤 용 수** |

Youn, Yong-Soo

A Study on the Conditions of Itifāt and its Constraints

Itifāt(literally ‘conversion’ or ‘turning one’s face to’) is a type of the specific Arabic expression. Muslim specialists in Arabic rhetoric defined it as the change of speech from one mode(person, tense, case, number etc.) to another for the sake of freshness and variety for the listener to renew his interest and to keep his mind from boredom and frustration through having the one mode continuously at his ear.

Some of them referred the Itifāt as the audacity of Arabic(shajā`ah al-`arabiyyah) or dynamics of the Quranic discourse.

Apparently Itifāt being seen the deviation from the orthodox Arabic grammatical rule, it can be understood as the grammatical error and non-logical device by the some orientalists.

But the communication function being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Arabic rhetoric, Itifāt be understood as the one of the Arabic rhetoric devices by the most muslim scholars.

In this article, I will try to find the conditions of Itifāt and its constraints. To find the common conditions and its constraints when Itifāt happens can be the useful method to prove the Itifāt as the rhetoric device in the Arabic language and its logical appropriateness.

I will use the change of viewpoint and person pronoun in Quran to analysis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9-332-A000175)

**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HK조교수.



Itlifāt because both are the reasonable tools to prove Itlifāt as the rhetoric device and has been considered as the typical Itlifāt in Quran.

[Key Word: Arabic Language, Quran, Arabic Rhetoric, Itlifāt, Viewpoint, Personal Pronoun]

I. 서론

인간은 의사소통을 위해서 문장, 발화, 몸짓 언어(body language) 등의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여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려 노력한다. 인간의 이러한 본능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장치들이 연구되어 왔고, 언어학분야에서 수사학은 의사소통의 극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연구해 왔다. 수사학에서 다루는 은유, 직유, 대조, 풍자, 도취, 모순, 완곡 등의 수사적 장치들은 언어적인 정확성을 중시하는 통사적인 기능 보다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능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학(특히 통사론)에서는 철학적 논리에 근거한 체계적인 서술과 발화, 예상되는 답변과 반응의 정확성과 적절성 등을 중요시 하지만, 수사학에서는 정형 문법의 틀을 벗어나거나 또는 예상되는 표현과 반응을 일탈하더라도 의사소통의 최적화를 실현할 수 있다면 이러한 일탈도 비언어적, 비논리적 현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는 수사학의 본질이 문법적 정확성보다 설득(persuade)의 개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박성창, 2005, 20).

아랍어 수사학에서 다루어지는 일티파트(Itlifāt)는 이러한 설득을 위한 일탈의 대표적인 사례다. Zamaksharī(1143년 사망), Ibn Ashīr(1239년 사망) 등의 아랍·무슬림 학자들은 일티파트는 아랍어의 독특한 표현의 한 형태로서 연설이나 발화 중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문체의 종류라 주장했다(Jalāl Ad-Dīn `abdu Ar-Raḥman As-Suyūṭī, 1978, 2:110). 즉, 일



티파트는 화자나 작가가 본인의 의사를 청자나 독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거나 강조하기 위하여 문법의 틀(인칭, 시제, 수, 격, 문체 등)을 벗어나는 발화(또는 표현) 형태로서 ‘아랍어의 용기(shajā`ah al `arabiyyah)’¹⁾ 또는 쿠란 담론의 역동성 (Dynamics of the Quranic Discourse)(Neal Robinson, 2003, 224)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학에서 의사소통 기능을 강조하고, 일티파트가 그 장치의 일부라 해도 논리적 타당성과 객관성에서 완전히 이탈한다면 이는 수사적인 장치가 아닌 비논리적인 문법적 오류(grammatical error)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로 P.Newton 등의 일부 동양학자들은 일티파트의 비논리성을 지적하며 이를 문법적 오류로 파악하기도 했다.²⁾

그러나 아랍인들의 일상 언어 생활에서 이미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 현상을 부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랍인들의 언어에 대한 불신과 불필요한 논쟁 뿐이다. 실제로 쿠란과 시를 포함한 아랍인들의 문어체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주어의 인칭과 격, 동사 시상의 전환은 일티파트 형식으로 구현되는 그들의 발화 특징이다. 따라서 일티파트 자체의 문법적, 논리적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쟁은 아랍어 자체에 대한 논쟁 제기가 될 수 있어 이는 적절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본 고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

일티파트가 문법적 오류가 아닌 수사적 장치(rhetoric device)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일티파트가 일어난 쿠란 구절에서의 논리적 타당성과 의미 전달의 극대화를 위한 장치로서 일티파트의 객관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랍어의 수사적 장치로서 일티파트를 연구하기 위해 일티파트의 조건과 제약 및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사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일티파트가 발생하는 문장들의 공통적인 조건과 제약을 규명한다면 의사전달의 극대화를 위한 수사적 장치로서 일티파트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티파트에 대한 기존의 국내외 연구 성과를 검토해 보면, 쿠란에서 일티파

1) <http://www.islamic-awareness.org/Quran/Text/Grammar/iltifaat.html>

2) <http://www.answering-islam.org/Authors/Newton/grammar.html>



트는 ① 인칭 대명사의 전환(1인칭 ↔ 3인칭, 2인칭 ↔ 3인칭), ② 인칭의 수(단수 ↔ 복수)와 행위자의 전환, ③ 청자의 전환(단수 ↔ 복수), ④ 동사 시상의 전환(완료 ↔ 미완료), ⑤ 격 표지어의 전환(문법적 불일치), ⑥ 대명사를 대신한 명사의 사용 등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윤용수, 2009, 198).

상기 6종류의 일티파트중 첫 번째인 인칭대명사의 전환이 가장 대표적인 일티파트로 간주되며(Mahinnaz Mirdehghan & Keivan Zahedi & Fatemah Nasiri, 2012), 가장 활발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특히 자마크샤리(Zamaksharī, 1143년)는 일티파트를 화자와 청자의 인칭대명사의 전환에만 제한해 사용하기도 했다(Hussein Abdul Raof, 2006, 257).

개별 연구에서 상기 모든 경우의 일티파트의 조건과 제약을 연구하기에는 지면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일티파트로 간주되는 시점(view of point)과 인칭대명사를 중심으로 한 일티파트의 조건과 제약을 연구하겠다.

인칭 대명사를 중심으로 한 일티파트는 전술한 바와 같고, 시점 역시 쿠란 일티파트를 파악하는 중요한 소재다. 인칭대명사의 일티파트가 쿠란에서의 미시적 일티파트라면, 시점의 일티파트는 화자의 서술 위치와 관련된 보다 거시적인 일티파트라 할 수 있다.

작품 속에서 작가의 위치를 의미하는 시점은 작품의 성격과 특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장치다. 쿠란은 소설이나 수필과 같은 일반적인 산문은 아니지만, 산문의 형식을 띠고 있는 계시서이자 예언서이기 때문에 쿠란에서 시점의 파악은 산문 텍스트로서 쿠란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일반 산문과 달리 쿠란에서는 시점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일티파트의 일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산문의 글쓰기 장치인 시점의 관점에서 쿠란을 분석하겠다.

본 연구자는 쿠란에 대해 종교적인 믿음과 경외심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쿠란은 성경등과 함께 인류의 귀중한 기록 문화 유산임은 분명하며 아랍어의 발달과 현대 이슬람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도 부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쿠란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슬람의 종교 경전이 아닌 역사적, 문학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산문 또는 언어 텍스트로서 쿠란을 연구할 것이며, 아랍인들의 서술과 발화 특징으로서 일티파트를 연구할 것이다.

II. 쿠란의 일티파트와 시점(viewpoint)

시점은 서술의 초점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인물, 행위, 배경, 사건 등을 독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서 작품 속 화자의 위치를 의미한다. 산문쓰기에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느 위치에서 전달하는가? 하는 것은 메시지 전달의 효율성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작가는 보다 직접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해 작품속에 직접 나타나기도 하고, 메시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작품 밖에 위치하기도 한다.

산문 쓰기에서 시점은 화자의 위치에 따라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작가 관찰자 시점, 2인칭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인 산문의 글쓰기에서는 특정 시점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고 있지만, 쿠란은 상기 언급한 모든 시점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정 장에서는 2가지 이상의 시점이 동시에 사용되어 독자를 혼란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쿠란은 이야기(story)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알라의 경고와 계도 및 사랑을 전달하는 종교적 메시지(message) 전달이 목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쿠란에서는 특정 시점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구절의 의미 전달과 설득에 가장 적절한 시점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동하고 있다. 쿠란에서 사용된 시점의 종류와 그 활용 및 특징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주인공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시점을 말한다. 즉, 1인칭(나 또는 우리)의 시점에서 서술자가 곧 주인공이 되어 나타나며, ‘나는 이렇게 하였다’,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는 식으로 서술해 나간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나’또는 ‘우리’를 서술자로 등장시킴으로써 서술자와 독자의 심적 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으며 독자에게 신뢰감, 친근감을 주는 동시에 때로는 화자의 권위를 부각시키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는 1인칭 단수와 복수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수의 선택에 있어서는 형태상 불규칙하게 보이나 분명한 기준에 따라 구분되어 사용되었다. 알라의 유일성 및 그의 권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1인칭 단수만이 사용되었고, 알라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1인칭 복수가 함께 사용되었다. 즉, 쿠란에서 수의 일티파트는 쿠란의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의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일티파트의 중요한 제약중의 한 가지다.

쿠란에서 절대적이며 불가항력적인 알라의 권위를 나타낼 때 사용된 1인칭 주인공 시점 특히, 단수 형태(‘나는...’)로 사용된 예는 아래와 같다.

(2:41)

وَأْمِنُوا بِمَا أَنْزَلْتُ مُصَدِّقًا لِمَا مَعَكُمْ وَلَا تَكُونُوا أَوَّلَ كَافِرٍ بِهِ وَلَا تَشْتَرُوا بِآيَاتِي ثَمَنًا
قَلِيلًا وَإِنِّي فَاتِنُونَ

〈내가 계시한 것을 믿고 이전에 내려 보낸 계시를 믿으라 이를 불신하는 우두머리가 되지 말 것이며 나의 계시를 어떠한 것보다도 교환하지 말고 나만을 두려워하라〉

(5:60)

قُلْ هَلْ أَنْبِئُكُمْ بِشَرٍّ مِّنْ ذَلِكَ مُنْجِبَةً عِنْدَ اللَّهِ مِنْ لَعْنَةِ اللَّهِ ...

〈내가 너희에게 그것보다 사악한 것을 알려주사 알라로부터 벌이 있으리라...〉



(5:111)

وَإِذْ أُوحِيَتْ إِلَى الْحَوَارِيِّينَ أَنْ آمِنُوا بِي وَبِرَسُولِي قَالُوا آمَنَّا وَاشْهَدْ بِأَنَّنَا مُسْلِمُونَ

〈보라 내가 제자들에게 나를 믿고 나의 선지자를 믿으라 하니, 그들은 우리는 믿 습니다 우리는 무슬림임을 고백합니다라고 말했다〉

쿠란에서는 알라가 아브라함(2:124, 22:26), 모세(20:12-14, 27:9-11, 28:30), 예수 (3:55) 등의 무함마드 이전의 사도와 알라와 그의 백성들(5:12, 17:2) 및 아랍인 (8:9)들과의 관계를 언급할 때도 1인칭 단수(나는...)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이들과의 친밀감을 강조함과 동시에 알라의 약속을 경고하며 알라의 유일 성(tawhīd)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으로 판단된다(Maḥ ad bn Mukhtār, 2006, 186).

(20:12 알라와 모세와의 관계)

إِنِّي أَنَا رَبُّكَ فَاخْلَعْ نَعْلَيْكَ إِنَّكَ بِالْوَادِ الْمُقَدَّسِ طَوًى

〈실로 내가 너의 주님이거늘 너의 신발을 벗으라 너는 성역인 투와 계곡에 와 있 노라〉

(5:110 알라와 예수와의 관계)

إِذْ قَالَ اللَّهُ يَا عِيسَى ابْنُ مَرْيَمَ وَرَافِعُكَ إِلَيَّ وَمَطِّهْرُكَ مِنَ الَّذِينَ كَفَرُوا وَجَاعِلُ الَّذِينَ اتَّبَعُوكَ فَوْقَ الَّذِينَ كَفَرُوا إِلَى يَوْمِ الْقِيَامَةِ ثُمَّ إِلَيَّ مَرْجِعُكُمْ فَأَحْكُمُ بَيْنَكُمْ فِيمَا كُنْتُمْ فِيهِ تَخْتَلِفُونَ

〈알라가 말씀하사 예수야 내가 너를 불러 내게로 승천하게 한 너를 다시 임종케 할 것이라 불 신자들로부터 세제하며 너를 따르는 자 부활의 그날까지 불신자들 위에 있게 하리라 그런 다음 너는 내게로 돌아오나니 너희가 달리한 것에 대해 가름을 하여 주리라〉



(5:12 알라와 그의 백성과의 관계)

وَلَقَدْ أَخَذَ اللَّهُ مِيثَاقَ بَنِي إِسْرَائِيلَ وَبَعَثْنَا مِنْهُمُ اثْنَيْ عَشَرَ نَقِيبًا وَقَالَ اللَّهُ إِنِّي مَعَكُمْ لَئِنْ أَقَمْتُمُ الصَّلَاةَ وَآتَيْتُمُ الزَّكَاةَ وَآمَنْتُمْ بِرُسُلِي وَعَزَّرْتُمُوهُمْ وَأَقْرَضْتُمُ اللَّهَ قَرْضًا حَسَنًا لَأُكَفِّرَنَّ عَنْكُمْ سَيِّئَاتِكُمْ وَلَأُدْخِلَنَّكُمْ جَنَّاتٍ تَجْرِي مِنْ تَحْتِهَا الْأَنْهَارُ فَمَنْ كَفَرَ بَعْدَ ذَلِكَ مِنْكُمْ فَقَدْ ضَلَّ سَوَاءَ السَّبِيلِ

〈알라가 이스라엘의 자손과 성약을 하고 그들 중에 열두 사람을 지도자로 보내면서 말씀하 셴더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나니 만일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고 나의 선지자들을 믿고 그들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대부하는 자는 하나 남께서 너희의 죄를 씻어줄 것이며 강이 흐르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 후 불신한 자가 된다면 이는 바른길을 벗어나 방황하리라〉

특히, 알라의 유일성, 인간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알라의 의지의 표현 등에서는 거의 예외없이 1인칭 단수 형태가 사용되었다. 이는 이 부분에서 1인칭 복수 형태를 사용할 경우 알라의 유일성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그의 권위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아래의 꾸란 구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152)

فَاذْكُرُونِي أَنْذُرَكُمْ وَأَشْكُرُوا لِي وَلَا تَكْفُرُونِ

〈너희가 나를 염원하매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니 내게 감사하고 거역하지 말라〉

(38:84-88)

قَالَ فَالْحَقُّ وَالْحَقَّ أَقُولُ لَأَمْلَأَنَّ جَهَنَّمَ مِنْكَ وَمِمَّن تَتَّبِعُكَ مِنْهُمْ أَجْمَعِينَ قُلْ مَا أَسْأَلُكُمْ عَلَيْهِ مِنْ أَجْرٍ وَمَا أَنَا مِنَ الْمُتَكَلِّفِينَ إِنَّ هُوَ إِلَّا ذِكْرٌ لِلْعَالَمِينَ وَتَتَعَلَّمَنَّ نَبَأَهُ بَعْدَ حِينٍ

〈알라께서 말씀하기를 그것은 진리요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말하리라, 너와 그리고 너를 따르는 모두로 지옥을 가득 채우리라, 내가 이것으로 너희에게 어떠한 보상도 구하지 아니하며 나 또한 위선자가 아니라, 이것은 모든 인류를 위한 교훈이라 실로 너희는 잠시 후면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리라〉



(51:56)

وَمَا خَلَقْتُ الْجِنَّ وَالْإِنْسَ إِلَّا لِيَعْبُدُونِ

〈내가 정령과 인간을 창조함은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천지창조와 인간의 탄생 등과 관련된 인간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에서는 1인칭 복수(우리는…)를 사용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알라의 사랑을 보다 친근감있게 표현했다.

(78:8-9)

وَخَلَقْنَاكُمْ أَزْوَاجًا وَجَعَلْنَا نَوْمَكُمْ سُبَاتًا

〈우리는 너희를 자웅으로 창조하였고, 또한 우리는 너희의 잠을 휴식을 위해 만들었으며〉

(78:12-15)

وَنَبِّئْنَا فَوْقَكُمْ سَبْعًا شِدَادًا وَجَعَلْنَا سِرَاجًا وَهَاجًا وَأَنْزَلْنَا مِنَ الْمُعْصِرَاتِ مَاءً ثَجَّاجًا لِيُخْرِجَ بِهِ حَبًّا وَنَبَاتًا

〈우리는 너희 위에 튼튼한 일곱 하늘을 두었으며, 또 우리는 밝게 빛나는 등불을 그곳에 두었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비구름으로부터 많은 물을 내려 보내고, 우리는 그것으로 곡식과 초목을 자라게 하며〉

이처럼 쿠란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알라가 1인칭 화자로 직접 등장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사랑과 경고를 보다 구체적이며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다신교 사상과 우상숭배를 부정하고 신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이슬람교의 특성상 알라의 유일성에 대한 표현에서는 1인칭 단수(나)만을 사용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 1인칭 관찰자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작품 속 제3의 인물이 주인공에 대하여 독자에게 이야기 하는 서술 형태다. 이때 제3의 인물은 관찰자 이상의 역할은 없으며 초점은 주인공에게 맞추어져 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은 주인공의 어떤 측면을 좀 더 객관화 시켜 드러낼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서술자와 독자간의 간격을 유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쿠란에서 1인칭 관찰자는 1인칭 단수(나는...) 또는 복수(우리는...)로 나타나는 천사이며, 관찰자인 천사를 통해 알라의 유일성과 그의 권위와 권능을 강조하고 객관화하고 있다.

(25:18)

إِنِّي وَجَّهْتُ وَجْهِيَ لِلَّذِي فَطَرَ السَّمَاوَاتِ وَالْأَرْضَ حَنِيفًا وَمَا أَنَا مِنَ الْمُشْرِكِينَ

〈나는 실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께로 나의 얼굴을 돌렸으니 나는 결코 알라와 다른 우상을 비유하지 않으리라〉

(25:20)

وَمَا أَرْسَلْنَا قَبْلَكَ مِنَ الْمُرْسَلِينَ إِلَّا إِنَّهُمْ لِيَأْكُلُوا الطَّعَامَ وَيَمْشُونَ فِي الْأَسْوَاقِ وَجَعَلْنَا بَعْضَكُمْ لِبَعْضٍ فِتْنَةً أَتَصْبِرُونَ وَكَانَ رَبُّكَ بَصِيرًا

〈우리가 그대 이전에 보낸 선지자들도 모두가 음식을 먹고 시장을 걸었으며 우리는 너희 가운데 일부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시험 하였노라 너희는 인내할 수 있느냐 알라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노라〉

쿠란에서 언급된 천사는 알라의 충실한 대리인으로써, 자유 의지를 갖지 않는 알라에게만 절대 복종하는 존재다. 쿠란에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비해 보다 많은 객관성을 나타내기 위한 장치로서 알라의 대리인인 천사를 1인칭 관찰자로 활용함으로써 알라의 권능을 강조하고 객관화하고 있다.



3. 작가 관찰자 시점

쿠란에서 작가 관찰자 시점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작가 관찰자 시점은 서술자가 작품 속에 나타나지 않고 외부 관찰자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시점을 말한다. 작가 관찰자 시점의 특징은 서술자가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외부적인 사실만을 관찰하고 묘사함으로써 극적이고 객관적인 서술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쿠란에서 작가 관찰자 시점은 알라의 권위와 권능을 보다 객관적으로 강조할 때 사용되었다. 이때 외부 관찰자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역시 천사이며 1인칭 관찰자 시점보다 관찰자를 더욱 객관화시킴으로써 알라의 권위를 부각시키고 있다.

(5:98)

اعلموا أن الله شديد العقاب وأن الله غفورٌ رحيمٌ

〈알라의 벌이 엄하심을 알라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관용과 자비가 충만하시니라〉

(4:40)

إن الله لا يظلمُ مثقالَ ذرَّةٍ وإن تكُ حسنةً يُضاعفها ويؤتِ من لَدُنْهُ أَجْرًا عَظِيمًا

〈알라는 조금도 불공평하지 않으시니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곱절로 크게 보상하여 주시노라〉

4. 2인칭 시점

쿠란에서 2인칭 시점은 비교적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알라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쿠란에서는 독자를 ‘너’ 또는 ‘당신’ 등으로 직접 지칭함으로써 독자가 마치 쿠란 속에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이는 쿠란이 종교의 성서로서 알라의 계시, 사랑 및 경고를 인간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알라의 계시 대상인 인간을 직접 2인칭으로 지칭함으로써 보다 강한 경고와 메시지 전달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쿠란에서는 간접 화법보다 직접 화법을 통해 알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불신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고백한 것에 따라 심판받는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직접 화법을 즐겨 사용하며 경고하고 있다(윤용수, 2010, 135).

(3:153)

إِذْ تُصْعِدُونَ وَلَا تَلْوُونَ عَلَىٰ أَحَدٍ وَالرَّسُولُ يَدْعُوكُمْ فِي أَخْرَاكُمْ فَأَتَابَكُمْ عَمَّا بَعِمَ لَكِنَّا نَحْنُ نُوا عَلَىٰ مَا فَاتَكُمْ وَلَا مَا أَصَابَكُمْ وَاللَّهُ خَبِيرٌ بِمَا تَعْمَلُونَ

〈너희가 언덕에 올라 어느 누구에게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너희 뒤에 계시던 선지자께서 너희를 부르더라 그리하여 알라는 너희에게 슬픔과 슬픔으로 보상을 주시었으며 너희가 잃은 것과 너희에게 닥친 것에 대하여 슬퍼하지 말라 하시었으니 알라는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이라〉

(3:158)

وَلَيْنَ مِنْكُمْ أَوْ فِتْنَتُمْ لَا إِلَى اللَّهِ تُحْشَرُونَ

〈만일 너희가 죽었거나 살해당했다면 너희는 알라께 돌아 가니라〉

(8:15)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إِذَا لَقِيتُمْ الَّذِينَ كَفَرُوا زَحَفًا فَلَا تُلُوهُمْ الْأَدْبَارَ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싸움터에서 불신자들을 만날 때 그들로부터 너희의 등을 돌리지 말라〉

전지적 작가 시점은 화자가 사건이나 등장인물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며, 등장 인물의 말이나 행위 중 자기가 선택하는 것만을 서술한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종교의 성서에는 적합하지 않은 장치로서 쿠란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았다.

본 장에서 제시한 상기의 시점들은 쿠란에서 다양하며 복잡한 형태로 나타난다. 각 장별로 다른 시점이 사용되는가 하면, 동일 장의 절에서도 여러 시점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7개의 절로 구성된 쿠란 제1장에서도 1-4 절은 작가 관찰자 시점, 5-7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사용하고 있다.

쿠란에서 '나' 또는 '우리'로 지칭되는 화자는 때로는 알라이고 때로는 천사여서 독자들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이 화자는 때로는 함축적 화자로 때로는 내포적 화자로 등장하여 독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이처럼 시점의 관점에서 쿠란이 일반적인 산문의 글쓰기 방식을 따르지 않고 다소간 혼란스러운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형식에 얽매이기 보다는 알라의 메시지를 충실히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티파트의 목적이 화자(또는 작가)의 메시지를 최대한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면 시점의 전환은 쿠란 일티파트의 매우 적절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점의 전환에 있어서도 무분별한 전환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1인칭 주인공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을 적절히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알라의 유일성 및 존엄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떠한 일티파트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시점 일티파트의 중요한 조건과 제약이라 할 수 있다.

III. 인칭대명사 일티파트의 조건과 제약

글쓰기에서 인칭은 문장의 주 요소로서 화자와 청자 또는 주어와 목적어를 구분지어 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담화(또는 담론)에서 화자와 청자를 또는 주어와 목적어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독자가 작품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인칭이 불규칙하게 혼용되어 사용된다면 이는 독자가 작품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어려움과 예기치 못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인칭은 화자나 작가의 메시지 전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고전은 물론 현대 산문에서도 작가는 본인의 의도를 최대한 정확하게 또는 적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인칭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인칭을 사용하여 본인이 작품 속에 직접 개입하여 자신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또는 제 3자의 자세에서 최대한의 객관적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작가들은 화자인 자신을 객관화시키기 위해 화자를 ‘본인은…’, ‘나는…’이란 표현보다, ‘작가는…’, ‘연구자는…’ 등등의 표현을 즐겨 사용하기도 한다.

작가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하여 화자가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복수로 표현하거나 그 반대로 표현되는 경우 역시 빈번하게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의견을 강조하고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사전에 공유되지 않은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이라 해도 1인칭 단수(‘나는…’) 보다 1인칭 복수(‘우리는…’)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쿠란에서는 동일 대상을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가 1인칭에서 3인칭으로, 3인칭에서 1인칭으로, 2인칭에서 3인칭으로,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변화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바뀌고 있다. 동일 인칭에서도 동일 대상을 언급하며 단수(나)와 복수(우리)가 번갈아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이븐 아시르는 쿠란에서 인칭 대명사의 불규칙한 전환은 아랍어가 갖고 있는 절묘하고 미묘한 언어적 장치로서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칭대명사의 다양한 전환은 알라의 유일성과 자비를 강조하기 위한 언어적 장치로서 아랍어만이 갖고 있는 언어적 융통성으로 설명했다(M.A.S. Abdel Hareem 1992).

쿠란에서 사용된 인칭대명사의 일티파트는 크게 1인칭 ↔ 3인칭, 2인칭 ↔ 3인칭간의 전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1인칭 ↔ 3인칭의 전환은 화자나 행위자의 전환 형태로, 2인칭 ↔ 3인칭의 전환은 목적어 또는 발화 대상의 전환 형태로 구분된다. 1인칭 ↔ 2인칭으로의 전환은 쿠란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1. 3인칭 ← 1인칭의 전환

1) 3인칭에서 1인칭으로의 전환

동일 대상을 지목하며 문장 내에서 주어가 3인칭 대명사에서 1인칭 대명사로 전환하는 현상은 꾸란의 인칭 대명사의 전환에 있어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며 약 140여 곳에서 발견된다.

3인칭 대명사에서 1인칭 대명사로 전환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알라가 행위자이며, 초자연적 존재인 알라의 위대함과 그의 권위와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즉, 3인칭의 표현보다 1인칭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M.A.S. Abdel Haleem, 1992). 이러한 전환의 예는 다음의 꾸란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

(27:60)

أَمَّنْ خَلَقَ السَّمَاوَاتِ وَالْأَرْضَ وَأَنْزَلَ لَكُمْ مِنَ السَّمَاءِ مَاءً فَأَنْبَتْنَا بِهِ حَدَائِقَ ذَاتَ
بَهْجَةٍ ...

(그 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신다. 우리는 이 비로써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게 한다)

위의 꾸란 구절에서는 동사로서 ‘창조하다(خلق)’, ‘내리다(أنزل)’, ‘가꾸다 (أنبتنا)’가 사용되었다. 상기 동사의 행위자는 모두 알라이지만, ‘창조하다’와 ‘내리다’는 3인칭 단수로, ‘가꾸다’는 1인칭 복수로 표현되었다. 이는 행위자의 인칭을 3인칭에서 1인칭 복수로 전환함으로써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강력한 의미의 전달과 극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M.A.S. Abdel Haleem, 1992). 이와 유사한 일티파트는 아래의 절에서도 발견된다.

(6:99)

وَهُوَ الَّذِي أَنْزَلَ مِنَ السَّمَاءِ مَاءً فَأَخْرَجْنَا بِهِ نَبَاتَ كُلِّ شَيْءٍ ...



〈그 분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모든 식물을 움트게 하며...〉

(25:48)

وَهُوَ الَّذِي أَرْسَلَ الرِّيحَ بُشْرًا بَيْنَ يَدَيْ رَحْمَتِهِ وَأَنْزَلْنَا مِنَ السَّمَاءِ مَاءً طَهُورًا

〈그 분은 그의 은혜를 전하는 바람을 보냈고 우리는 하늘에서 깨끗한 비를 내리게 한다〉

위의 구절에서 비와 물, 생물체의 성장 등 자연을 다스리는 알라의 권능과 관련하여 중요하거나 강조되는 지점에서 인칭 대명사를 3인칭 단수에서 1인칭 복수로 전환시킴으로써 알라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강조하고 인간의 알라에 대한 경배심을 고양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Maḥ ad bn Mukhtār, 2006, 192).

꾸란에서는 행위자가 3인칭 단수에서 1인칭 단수로 전환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그 빈도가 3인칭 단수에서 1인칭 복수로 전환하는 경우보다 많지는 않지만, 알라의 초자연성, 인간에 대한 경고와 알라의 유일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나타난다(Neal Robinson, 2003, 246).

(16:1-2)

يُنزِّلُ الْمَلَائِكَةَ بِالرُّوحِ مِنْ أَمْرِهِ عَلَىٰ مَنْ يَشَاءُ مِنْ عِبَادِهِ أَنْ أَنْذِرُوا أَنَّهُ لَا إِلَهَ إِلَّا أَنَا فَاتَّقُونِ

〈그 분은 천사들을 통하여 그 분이 원하시는 선지자들에게 명령의 말씀을 보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나를 경외하라〉

(39:16)

لَهُمْ مِّنْ فَوْقِهِمْ ظِلٌّ مِّنَ النَّارِ وَمِنْ تَحْتِهِمْ ظِلٌّ ذَلِكَ يُخَوِّفُ اللَّهُ بِهِ عِبَادَهُ يَا عِبَادِ فَاتَّقُونِ



〈불의 덮개가 그들 위와 그들 아래에 있으리라. 알라는 이것으로 그의 종들을 경고한다. 나의 종들이여 나를 경외하라〉

위의 구절에서 (16:1-2)는 알라의 유일성에 대한 경고이고, (39:16)은 인간에 대한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위의 두 절에서도 최초의 행위자는 ‘그’(16/1-2)와 ‘알라’(39/16)로 표현되었지만 곧 ‘나’로 전환함으로써 의미를 강화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Neal Robinson, 2003, 246).

아랍 수사학자들은 만약 인칭을 일치시키는 등 정상적인 문법 규칙을 준수했다면 일티파트에서 거둘 수 있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어휘와 표현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M.A.S. Abdel Hareem, 1992). 즉, 일티파트를 통해 어휘 사용에 있어 보다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2) 1인칭에서 3인칭으로의 전환

1인칭 대명사에서 3인칭 대명사로의 전환은 3인칭 대명사에서 1인칭 대명사로의 전환 다음으로 많으며 약 100여 곳에서 발견된다.

(2:172)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كُلُوا مِن طَيِّبَاتِ مَا رَزَقْنَاكُمْ وَاشْكُرُوا لِلَّهِ إِن كُنتُمْ إِيَّاهُ تَعْبُدُونَ

〈믿음을 가진 자들이여 우리가 너희에게 부여한 양식 중 좋은 것을 먹되 알라께 감사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라〉

(48:1-3)

إِنَّا فَتَحْنَا لَكَ فَتْحًا مُّبِينًا

لِيُغْفِرَ لَكَ اللَّهُ مَا تَقَدَّمَ مِن ذَنْبِكَ وَمَا تَأَخَّرَ وَيُنِمْ نِعْمَتَهُ عَلَيْكَ وَيَهْدِيكَ صِرَاطًا مُسْتَقِيمًا

وَيَنْصُرَكَ اللَّهُ نَصْرًا عَزِيمًا

〈우리는 그대에게 분명히 열어 주었다/그것은 알라께서 지나간 그대의 과오를 용



서하고 그대에게 그분의 은혜를 충만케 하며 그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알라께서 강력한 권능으로 그대를 돕고자 하셨노라)

위의 쿠란 구절은 주어이자 행위자인 알라가 1인칭 복수로 표현되다 3인칭 단수로 전환하는 일티파트 현상의 예다. 위의 구절에서 주어가 1인칭 복수(우리)에서 3인칭 남성 단수형태(알라)로 전환되고 있지만, 실제 주어는 알라이다.

‘우리가(는)’로 표현된 부분의 행위자를 천사로 파악할 수도 있지만, 이슬람에서 천사는 알라의 심부름꾼일 뿐 알라와 같은 능력은 없다. 즉, 천사에게는 인간에게 양식을 부여하고, 길을 열어 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자는 알라일 수 밖에 없다.

위의 예에서 화자는 알라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왜 화자를 1인칭 복수와 3인칭 단수로 함께 병행해서 표현하는가? 알라가 자신을 1인칭 복수로 표현하면서 때때로 자신을 ‘우리가’ 아닌 3인칭 ‘알라(the Lord)’로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Roman Jakobson은 구어 의사소통(verbal communication) 방식을 표현(expressive)중심 소통, 능동적(conative) 소통과 인지적(cognitive)소통 방식으로 구분했다. Jakobson은 표현 중심 소통은 화자를 강조하며, 능동적 소통은 청자를, 인지적 소통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조한다고 주장했다(Neal Robinson, 2003, 229).

쿠란의 담화 방식은 Jakobson이 주장한 상기의 3가지 소통 방식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화자가 맹세 또는 서약을 하거나 알라 자신을 지칭할 때는 ‘우리’ 또는 ‘나’를 사용하는 것은 표현적 소통에 해당한다. 화자가 ‘오...’ 등의 호격사를 사용하며 청자를 언급하거나 명령하는 경우는 능동적 소통에 해당한다. 또한 알라가 자신을 ‘알라(the Lord)’로 지칭하며 알라에 대한 청자의 복종을 상기시킬 경우 역시 능동적 소통방식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알라가 자신을 ‘그’, ‘알라’ 또는 알라의 별명(창조자, 수호자, 용서자 등)중의 한 가지 등으로 언급할 때는 인지적 소통에 해당한다. 이는 인간에



대한 알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쿠란의 필수적인 담화 방식이다. 만약 알라가 자신을 표현 중심이나 능동적 소통만으로 제한해서 표현한다면 반복적으로 계시되는 알라의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쿠란은 알라 자신의 일인칭 자서전이 아니며, 알라가 쿠란의 작가도 아니며 쿠란에서 계시되는 내용의 주체로 등장한다. 따라서 쿠란에서 알라는 1인칭 복수로 표현되다 ‘알라’, ‘당신의 랍비’와 같은 3인칭 단수로 표현되는 것은 쿠란의 근본적인 메시지를 보다 객관적이며, 분명하게 인간들에게 전달하고 설득하며 알라의 유일성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2. 3인칭→2인칭의 전환

1) 3인칭에서 2인칭으로의 전환

3인칭에서 2인칭으로의 전환은 쿠란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으며 청자나 목적어의 전환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 형태의 전환은 알라의 존엄성, 알라의 영광, 경고, 요구를 보다 직접적이며 강렬하게 인간에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이 형태의 전환은 쿠란의 약 60여 곳에서 발견된다.

(1:2-5)

الْحَمْدُ لِلَّهِ رَبِّ الْعَالَمِينَ الرَّحْمَنِ الرَّحِيمِ مَلِكِ يَوْمِ الدِّينِ إِيَّاكَ نَعْبُدُ وَإِيَّاكَ نَسْتَعِينُ

〈은 우주의 주님이신 알라께 찬미를 드리나이다/그분은 자애로우시고 자비로 우시며/심판의 날을 주관하신다/우리는 당신만을 경배하오며 당신에게만 구원을 비나니〉

위의 구절 (1:2)에서는 알라가 처음에는 ‘알라’로 언급되었으나 (1:5)에서는 ‘당신’으로 언급되어 동일 대상에 대한 인칭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의미상 모두 목적어다. 이는 경배와 숭배의 대상으로서 알라를 지목하여 구체화한 후



에 2인칭으로 전환하여 보다 직접적이며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려는 발화 전략이다. 이러한 쿠란 문체는 문장의 중간에 직접적 대상을 가르치는 2인칭으로 전환함으로써 알라의 영광과 알라의 유일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2) 2인칭에서 3인칭으로의 전환

쿠란에서 2인칭 대명사에서 3인칭 대명사로의 전환은 약 30여 곳에서 발견되며 인칭 대명사의 전환 중 그 수가 가장 작다. 이 형태의 전환을 통해서 화자의 청자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고 청자를 보다 일반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6:72)

وَاللّٰهُ جَعَلَ لَكُمْ مِّنْ اَنْفُسِكُمْ اَزْوَاجًا وَجَعَلَ لَكُمْ مِّنْ اَزْوَاجِكُمْ بَنِيْنَ وَحَفَدَةً وَرَزَقَكُم مِّنَ الطَّيِّبَاتِ اَفَبِالْبَاطِلِ يُؤْمِنُوْنَ وَبِنِعْمَتِ اللّٰهِ هُمْ يَكْفُرُوْنَ

〈알라네 너희를 위해 너희 중에서 배우자를 두어 너희 아내들로부터 아들과 자손을 갖게 하고 너희를 위한 양식으로 좋은 것을 주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것은 헛된 것이니 그들은 알라의 은혜를 불신한다〉

(45:35)

ذٰلِكُمْ بِاَنَّكُمْ اَتَّخَذْتُمْ اٰيَاتِ اللّٰهِ هُزُوًا وَعَرَّيْتُمْ الْحَيٰةَ الدُّنْيَا فَاَلْيَوْمَ لَا يُخْرِجُوْنَ مِنْهَا وَا لَا هُمْ يُسْتَعْتَبُوْنَ

〈이것은 너희가 알라의 예증을 조롱했고 너희가 현세 생활에 유혹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날로부터 그곳에서 헤어 나지도 없으며 은혜를 받을 수도 없다〉

위의 구절 (16:72), (45:35)에서는 인간에 대한 알라의 경고를 하고 있다. 구절의 첫 부분에서는 2인칭 대명사 ‘당신들’을 사용하여 청자에게 직접적인 알라의 경고를 하고 있으나, 곧 3인칭 대명사 ‘그들’으로 전환하여 청자에 대한 거리감과 함께 계시와 인간의 행위로 인한 징벌의 객관성을 나타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즉, 알라의 요구와 명령을 위반한 자는 예외없이 알라의 은혜



를 받을 수 없음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기법은 현대 산문에서도 대상을 일반화시키기 위해 2인칭(당신)을 지칭하면서도 3인칭(독자 등)으로 표현하는 화법과 일치하고 있다.

상기에서 언급된 쿠란의 인칭대명사의 일티파트는 아래와 같이 규정할 수 있겠다.

구분	의미와 효과	빈도	비고
1인칭→3인칭	-알라의 권위와 권능의 객관화 -알라의 사랑과 경고에 대한 메시지의 객관화	100	행위자의 인칭 전환
3인칭→1인칭	-알라의 초자연성과 유일성 강조 -인간에 대한 경고	140	
2인칭→3인칭	-화자의 청자에 대한 감정 표현의 극대화 -대상의 일반화 -의미의 객관화	30	청자 및 목적어의 인칭 전환
3인칭→2인칭	-보다 직접적이며 강력한 의미 전달 -극적 효과	60	
1인칭→2인칭	X	x	없음

IV. 결론

이슬람교의 성서이자 아랍 사회의 고전(古典)인 쿠란은 전체 114장으로 구성된 아랍의 대표적인 산문이다. 쿠란은 종교적으로 이슬람교의 성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산문의 전개 형태인 기승전결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있고 실제로 그럴 필요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쿠란은 알라의 메시지를 보다 정확하게 강력하게 인간에게 전달하고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논리적, 문법적 당위성보다 의사전달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수사적인 면이 강조되었고, 이를 위한 다양한 수사적 장치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쿠란은 언어적으로 표준 아랍어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논리적, 이성적



기준에 따라 서술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쿠란의 의미와 내용의 정확한 전달이 더 중요시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언어적 정확성과 정형성을 파괴하더라도 정확한 의미의 전달과 같은 기능적 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쿠란에서 나타난 이러한 정형성의 일탈은 아랍어 수사학에 반영되어 아랍어의 표현을 더욱 풍부하고 다양하게 하는 언어적 토양이 되었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쿠란은 한 사건, 한 인물 혹은 한 주제어 밑에 주제별로 정돈되어 있지 않고 문체 또한 독특하여 때론 너무 간결하고 때론 긴 산문체이며 많은 경우에 수사적이고 은유적이기 때문에 이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 장내에서 전개되던 주제가 갑자기 또 다른 주제로 바꾸고 때로는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견된다(손주영, 2009, 27).

쿠란의 상기와 같은 특징과 수사적 표현의 발달로 인해 비아랍어권 독자들은 쿠란의 독해에 어려움을 겪는다. 쿠란 강독과 이해에서 비아랍어권 독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대략 아래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① 복잡하고 다양한 시점의 변화
- ② 알라가 화자임에도 불구하고 빈번하게 반복되는 3인칭 표현
- ③ 알라가 자신을 1인칭 복수로 표현하지만, 종종 천사 가브리엘이 1인칭 복수로 표현
- ④ 화자의 1인칭 단수 ↔ 1인칭 복수간의 잦은 전환

상기의 어려움은 모두 아랍어의 일티파트 현상과 관련된 것으로서, ①은 시점 일티파트이며, ②, ③, ④는 인칭 일티파트다.

쿠란의 시점은 일반적인 산문의 글쓰기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매우 복합적인 시점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인 산문의 글쓰기에서는 본문에서 논한 시점 중 특정 시점이 선택되어 산문 전체를 관통하고 있지만, 쿠란에서는 전술된 모든 시점들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고, 각 장은 물론 동일 절에서도 시점을 넘나드는 다양하고 복잡한 형식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점이 일반적인 산문에 익숙해 있는 독자들에게는 매우 난해하게 받아 들여 질 수 밖에 없고, 서양인들이 쿠란을 '독해하기에 가장 난해한 책'으로 지명한 주요 원인중의 한가지이기도



하다.

쿠란의 화자는 기본적으로 알라가 함축적 화자이지만, 때때로 아무런 사전 예고없이 함축적 화자로서 천사 또는 무함마드가 등장하기도 하고, 내포적 화자로서 천사와 무함마드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 역시 쿠란 읽기와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들 중의 하나다. 결국 시점의 다양성과 화자 인칭의 불명확성과 애매모호함이 독자의 쿠란 읽기와 이해를 어렵게 한다

이러한 시점의 변화는 고의적으로 독자에게 혼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쿠란의 메시지를 보다 정확하고 올바르게 전달하려는 발화 전략의 일부분으로 판단된다. 형식보다는 정확한 의사 전달을 위한 실용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즉, 시점을 중심으로 한 일티파트는 의사 전달 효과의 실용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일탈도 주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쿠란이다.

또한 쿠란에서는 행위자를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한 일티파트가 복잡하게 나타난다. 알라가 자신을 지칭하며 1인칭 단수(나는…)로 표현하다 갑자기 1인칭 복수(우리는…)로 전환하기도 하고, 화자가 알라에서 천사로 갑자기 전환하기도 한다. 쿠란에서 사도 무함마드는 2인칭으로, 일반 대중은 3인칭 복수로 표현하기도 한다. 때로는 무함마드를 3인칭으로, 일반 대중을 2인칭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아랍어의 수사적 장치인 일티파트의 대표적인 현상이다.

상기의 특징들을 고려할 때, 쿠란은 비아랍권 문헌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독특한 문체를 갖고 있다. 이는 아랍인들의 문학적 전통과 쿠란 전승의 특징 및 아랍인들의 발화 특징을 고려해야만 이해될 수 있다. 쿠란은 기본적으로 구어로 전승되다 후대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인칭의 전환을 포함한 일티파트 현상은 처음부터 문어체로 기록된 문헌에 비해서 자유롭게 나타난다. 또한 아랍인들은 본인들이 두려워하거나 경배하는 대상은 구체적인 주어로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은 아랍인 발화의 특징이기도 하며 이는 아랍어 통사론에서 수용되고 있는 아랍어의 특징중의 한가지다.

상기와 같은 아랍의 문학적 전통, 쿠란의 특수성 및 아랍어의 언어적 특징을 고려한다 해도 일티파트를 수사적 장치로서 수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과



계약하에서 일티파트가 일어난다는 필요 조건은 충족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쿠란에서 나타나는 시점 및 인칭대명사 전환과 관련된 일티파트는 아래의 조건과 제약을 준수하고 있다.

첫째, 인칭대명사는 전환하더라도 동일인(또는 동일 대상)을 가리킨다.

쿠란의 주 화자인 알라, 천사 등은 1인칭 단수 ↔ 1인칭 복수, 1인칭 ↔ 3인칭 등으로 자유롭게 전환하며 표현되지만 인칭대명사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동일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 의미의 강조와 정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 인칭 대명사를 전환하는 것은 다른 산문에서도 사용되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그 대상이 동일하지 않다면 의미 전달에 커다란 장애가 발생할 것이다. 쿠란에서는 이 조건이 지켜지고 있으면 이를 통해 독자가 쿠란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있다.

둘째, 알라의 유일성과 관련된 부분은 단수로 표현되고 있다. 쿠란에서는 동일 대상을 가리키며 1인칭과 3인칭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고, 동일 인칭내에서도 단수와 복수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알라의 유일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수의 일티파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이슬람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유일신 사상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수사적 장치로서의 일티파트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셋째, 쿠란에서 1인칭 ↔ 2인칭간의 일티파트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화자와 청자를 교체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독자에게 커다란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일티파트가 의미 전달을 위한 수사적 장치라 해도 이러한 형태의 전환은 발생할 수 없다.

이처럼 쿠란에서 일티파트 현상은 쿠란의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빈번하게 사용되었으나, 그 나름의 의미적 내포와 형태적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알라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1인칭을, 청자에게 강한 경고와 직접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2인칭을, 알라의 권위와 권능을 보다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3인칭이 사용되었고, 글쓰기의 시점도 인칭대명사의 일티파트와 적절하게 부합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일티파트가 사용된 쿠란은 독자가 그 이해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나름의 의미와 형태상의 규칙과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문법적 오류로 간주할 수는 없다.

쿠란의 정확한 이해와 파악을 위해서는 아랍어에 대한 언어적인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그들의 사고 방식과 체계 및 언어 습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동시에 필요하다. 일티파트는 아랍어와 아랍인들의 언어 표현 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일티파트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통해 아랍어, 아랍인 및 그들의 사회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주제어: 아랍어, 쿠란, 아랍어 수사학, 일티파트, 시점, 인칭대명사]



참고문헌

- 박성창(2005). 『수사학』. 문학과 지성사.
- 손주영(역)(2009). 『꾸란 선-35개장의 의미 번역과 주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윤용수(2009). “꾸란 텍스트의 문법적 변형에 관한 연구-인칭 대명사를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총』 제29-3호.
- _____(2010). 아랍어의 Itifāt 연구-꾸란 텍스트의 격과 시상을 중심으로-, 『중동문제연구』 제9권 1호.
- 최영길(1996). 『성꾸란』. 파하드 국왕 꾸란 출판청.
- Abdul Raof Hussein(2006). *Arabic Rhetoric A Pragmatic analysis*. Routledge. London & New York.
- As-Suyūfī Jalāl Ad-Dīn `Abdul Ar-Rahman(1978). *Al-Itqān fī ulūm al-Qurān*. 4(eds.) Egypt: Matba`ah Mustafāh Al-Bābī Al- Halabī.
- Mirdehghan Mahinnaz & Keivan Zahedi & Fatemah Nasiri(2012). Itifat, Grammatical Person Shift and Cohesion in the Holy Quran. *Global Journal of Human Social Science*. Vol.12. Issue. 2. Global Journal Inc.
- Mukhtār Ma`had bn.(2006). Dirasāt Dilālāt Al-Itifāt `alāā` dau` Nazarah Shāmilah. *Journal of Quranic Studies*. Vol. 8.
- Robinson Neal(2003). *Discovering the Quran A Contemporary Approach to a Veiled Text*. Georgetown University Press. Washington D.C..
- https://globaljournals.org/GJHSS_Volume12/7-Itifat-Grammatical-Person-Shift-and-Cohesion.pdf (Itifat, Grammatical Person Shift and Cohesion in the Holy Quran)
- <http://www.islamic-awareness.org/Quran/Text/Grammar/iltifaat.html>(Haleem Abdel M.A.S. Grammatical Shift For The Rhetorical Purposes: Itifāt And Related Features In The Qur`ān.)
- <http://www.answering-islam.org/Authors/Newton/grammar.html> (The Quran: Grammatical Error)

논문접수일 : 2012년 08월 30일

심사완료일 : 2012년 09월 26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9월 28일